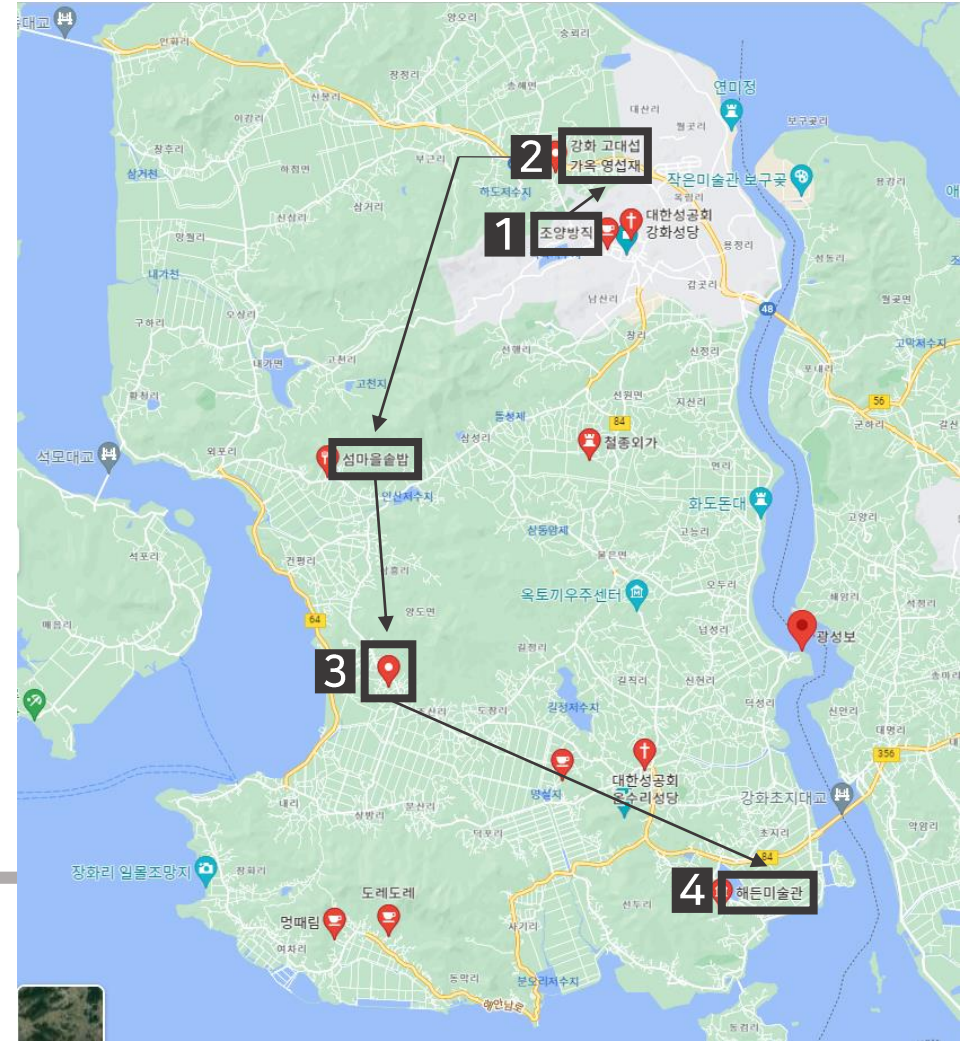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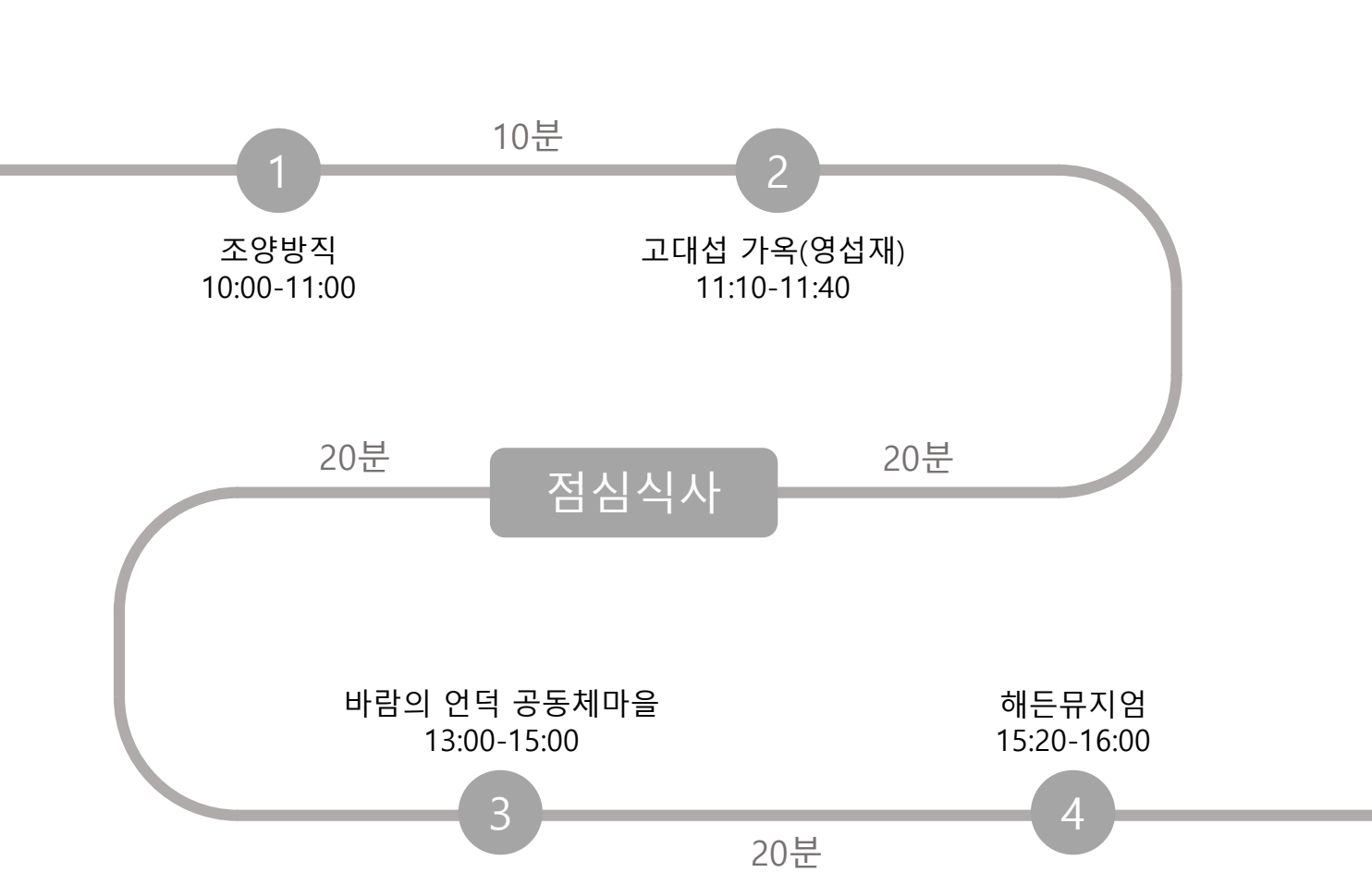


강화도 공동체 주거단지 일일답사

- 일시: 2022년 5월 21일(토) 10시~16시
- 인원: 20명 (최대 25명)
- 회비: 1인 50,000원



장소 및 일정



조양방직

- 10:00-11:00
- 설명: 이용철 대표님
- 주소: 인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5번길 12



폐공장에서 강화명소로

1933년 일제강점기, 강화의 갑부였던 홍재묵, 홍재용 형제가 국내 자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회사를 설립한다. 이는 조양방직으로, 1936년 설립된 서울의 경성방직보다 3년 빨리 설계되었다.

해방 이후까지만 해도 강화는 우리나라의 직물산업을 이끌던 곳이었다. 한창 직물산업이 활발할 당시에는 강화읍에만 직물공장이 60여 개, 직원은 약 4000명이 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방직공장이 경북 구미나 대구로 옮겨가면서 공장은 가동을 멈추었다. 최고 품질의 인조 직물을 생산하던 조양방직 또한 1958년 폐업한 이후 약 20년에서 30년간 폐공장으로 방치되었다.

총 2500여 평의 대규모 폐공장이 폐허로 전락하고, 다시 사람이 찾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서울에서 유럽 빈티지샵을 운영하던 이용철 대표는 우연히 이곳을 방문했다가, 시간이 멈춘 공장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그는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는 신조로 공장의 형태를 그대로 남긴다. 또한 마네킨과 트랙터와 같은 낡은 물건을 끌어들이며 폐공장을 미술관이자 빈티지 이색 카페로 변화시켰다.

사물이 비록 숨을 쉬지는 않지만, 그 나름의 생명력이 있다고 이용철 대표는 말한다. 생산 당시 용도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양방직은 단순히 이색카페만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물의 가치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배움터이자 예술의 장이다.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

조양방직은 처음 강화도에 자리 잡았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낮은 울타리 뒤로 회색빛 건물이 위치해있다. 뾰족한 삼각형의 공장 지붕과 한옥의 구조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건물임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장 벽 외관에는 그늘음과 때가 묻어나 공장이 버텨온 세월을 말해주기도 한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당시 건축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목재로 만든 지붕과 마루가 그것이며, 공간 구석구석에는 1980~90년대에서나 볼 법한 옛 소품이 전시되어 있다. 빨간 공중전화박스, 놀이공원에서 탈출한 듯한 낡은 목마 모형, 사용감 있는 재봉틀과 같은 흥미로운 소품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고다. 조양방직의 금고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고보다 수백 배쯤 크다. 2층 건물 높이로 만든 회색 콘크리트 박스 위에 부를 상징하는 누런 황소 동상이 비치되어 있다. 이러한 커다란 금고를 통해 당시 방직산업의 호황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4칸으로 시작했던 공장이 운영이 잘 되자, 다시 4칸을 증축하였다. 그 흔적을 현재에도 찾을 수 있다. 기존보다 크고 높은 규모의 증축 공간은 일본 삼나무를 건축자재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일본에서도 찾기 어려운 귀한 목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카페가 자리하고 있는 홀은 과거에 사용하던 공장 기계들을 테이블로 꾸며 그대로 옮겨놓았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재봉틀을 테이블로, 오래된 미용실 의자를 착석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독특함을 더했다. 벽에는 1945년 조양방직의 조업 모습을 찍은 사진이 걸려있어 공장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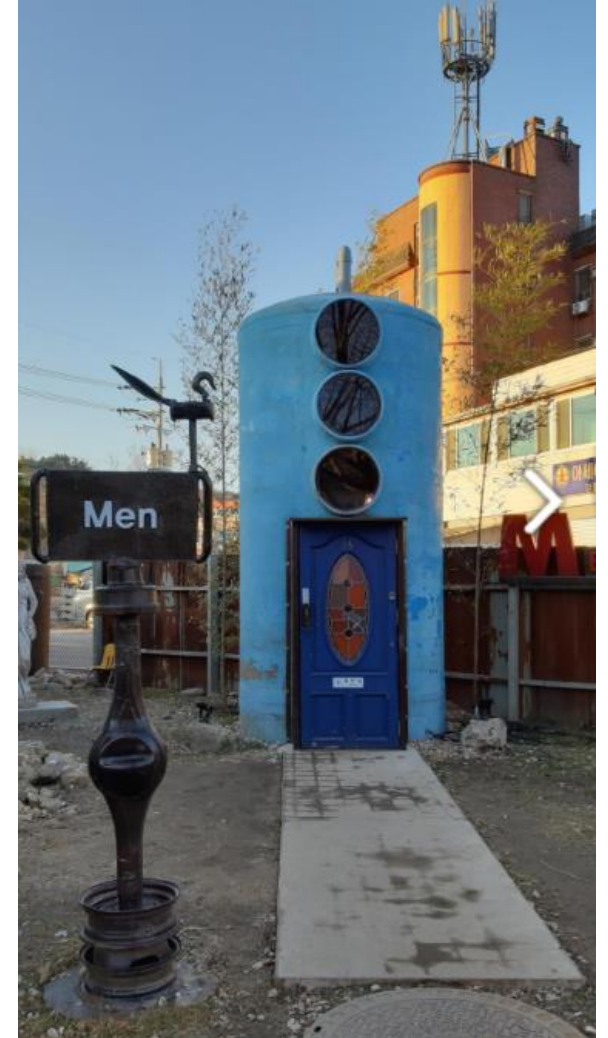
▼ 옛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외관



▼ 빈티지 소품



▼ 화장실로 개조된 정화조



▼ 공장 기계들로 꾸며진 카페 내부



▼ 콘크리트 금고



고대섭 가옥

- 조양방직 11:00 → 고대섭가옥 11:10 (차량 10분)
- 11:10-11:40
- 주소: 인천 강화군 송해면 슬정리 23-4



정성과 전통을 담은 가옥

고대섭은 강화 고려인삼의 최초 경작자로 알려져 있다. 인삼무역 특성상 서울·개성 등 국내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국외를 많이 돌아다녔던 그는 개성에서 본 집이 마음에 들었고, 똑같은 집을 짓기로 하였다. 이렇게 지어진 고대섭 가옥은 전통 한옥과 일본식 건축양식을 혼합한 형태를 띠고 있어 큰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다.

고대섭 가옥의 크기는 반가 99칸이다. 99칸은 전통시대 관현이나 공공의 건물인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건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이다. 100칸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치인 99칸을 지었던 것이며, 그 당시 99칸 집이라고 하면 규모가 굉장히 큰 집이었다.

집을 짓기 위한 자재인 돌과 목재는 황해도에서 가져왔다. 종손에 의하면, 집을 짓기 위해 고대섭이 직접 건축 재료를 전부 황해도에서 배로 실어 날랐다고 한다. 이러한 정성이 담긴 고대섭 가옥은 2006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었다.

고대섭 가옥은 솥을 대문을 가운데 두고 사괴석(벽 혹은 돌담을 쌓는 데 쓰는 육면체의 돌)으로 담장이 둘러져 있다. 또한 솥을 대문의 좌측과 우측 두 곳까지 총 3면에 문을 냈다. 집 안 쪽은 마당을 중심으로 안채를 ‘기역(ㄱ)자 형태로 하고, 사랑채 등을 ‘니은(L)자 형태로 하여 전체적으로 ‘미음(ㅁ)자 형태의 한옥을 완성하였다. 안채를 중심으로 사랑채와 행랑채 사이 트인 곳으로 중정을 드나드는 출입구가 있다. 또한, 반루 기둥 위에 겹처마를 사용하는 것까지 개성식 한옥의 전통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두 양식의 조화가 만들어낸 가치

16세기부터 다도는 일본의 건축양식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다실’이 독립적인 주택으로 지어지기도 했다. 다실의 외관은 매우 작고 평범하며, 건축재료 또한 소박하고 수수하다. 그러나 공예기술과 같은 세부적인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는 정도는 궁궐못지 않았다. 이러한 다실에서는 계급의 구분없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고대섭 가옥은 행랑채 끝 쪽에 다실을 배치하여 전통 한옥 시설 속에서 일본의 건축양식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함을 더하는 시설

그 당시의 주택들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징들은 고대섭 가옥에 특별함을 더한다. 그 중 한 가지는 땅을 약 2m 정도 깊이로 파고 지하 난방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툇마루 아래로 방마다 아궁이를 만들고, 아궁이 사이로는 통풍구멍을 내었다. 이 지하 공간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를 숨겨주기도 했고, 6·25전쟁 당시 고씨 가족이 피난하여 숨기도 했다.

또 다른 특징은 별채에 설치된 목욕시설이다. 무쇠솥의 지름은 1.5m 정도로 현재의 욕조와 같은 기능을 하며, 근대식 목욕탕의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건물 내부에 남자와 여자가 사용하는 복도를 각각 별도로 마련해 놓았다는 점도 보편적인 주택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구조이다.

▼ 솟을 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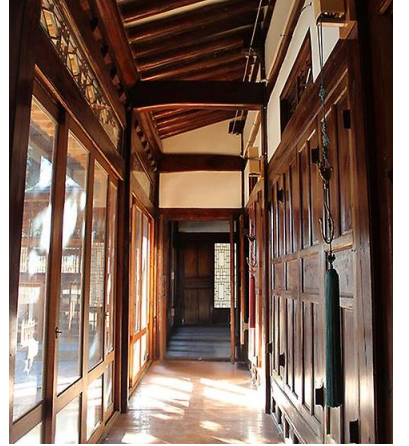
▼ 사괴석 담장



▼ 근대식 목욕시설



▼ 행랑채 끝 다실



▼ 지하 난방시설



▼ 통풍 구멍



▼ 사랑채와 행랑채 사이 중정 출입구



바람의 언덕 공동체마을

- 식사장소 12:40 → 바람의 언덕 공동체마을 13:00 (차량 20분)
- 13:00-15:00
- 설명: 기노채 대표님
- 주소: 인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209번지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택

2016년, 강화도 양도면 소재 학부형중심으로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가 설립되었다. 이 중 몇몇 학부형을 중심으로 공동체 주택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였고, 바람의 언덕 공동체마을 사업이 추진되었다. 건설과정과 입주 이후 공동체 운영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내부 공동체주택 관리규약을 마련하였으며,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 등 기존 마을 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연계활동도 고려하였다. 그 방법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자람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주중에는 마을도서관, 주말에는 입주민 공동체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소통 뿐만 아니라 지역 마을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토지를 확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만큼 저렴하고 좋은 토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민들에게 고품질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입주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원하는 만족도 높은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가능한 세컨드하우스가 아닌 귀촌자를 대상으로, 또한 은퇴세대중심이 아닌 다양한 세대로 구성하여 활성화된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유주택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매월 또는 격월로 입주자 모임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개최하여 입주자 간 유대감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단지 내에서 입주자 간, 그리고 지역공동체와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한 것은 기존의 전원주택과는 차별화된 장점으로 작용한다.

설계 과정 속 다양한 디테일

바람의 언덕 공동체마을의 단지를 설계할 때에는 기존 토지 레벨을 최대한 활용하였는데, 주택별 바닥레벨을 조정해서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주차장을 입구에 배치하고 단지 내부로 차량진입을 금지시켜 단지내 보행도로를 확보하였다. 마을 중심에 옥외공유공간도 제공하였는데, 공용마당을 통해 개방감을 주고 입주민들의 공동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단지내 LPG 가스배관과 전기차 대응 배관, 전기인입성을 모두 지중 매립하였으며, 전 세대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세대별 조망권도 확보하였다. 입주자 및 지역공동체 간 소통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하우스인 자람도서관은 마을입구에 배치되어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지닌다.

주택설계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목조에 비해 수명이 긴 스틸하우스 구조를 적용하였다. 마감재를 선정할 때에는 경제성과 심플함을 따졌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는 않은 검이불루(儉而不陋) 사상을 반영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바람의 언덕 공동체마을은 단순하지만, 성능은 극대화된 설계과정을 거쳤다. 독일수입 시스템 창호, 철저한 단열, 콘크리트 줄기초 위의 단단한 축대가 이를 설명해준다.

인테리어 과정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입주자를 디자인 코디로 선정하여 활동하였다. 다양한 인테리어 자재를 소개한 후, 개인의 부담능력 및 취향을 반영하여 마감재를 선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

▼ 외관



▼ 외관 및 자람도서관



▼ 주택 내부 1



▼ 주택 내부 2



▼ 주택 내부 3



▼ 주택 내부 4



▼ 주택 내부 5



▼ 화장실



▼ 욕실



▼ 자람도서관 (낮)



▼ 자람도서관 (밤)



▼ 자람도서관 내부



해든뮤지움

- 바람의 언덕 공동체 마을 15:00 → 해든 뮤지엄 15:20 (차량 20분)
- 15:20-16:00
- 전시 해설: 큐레이터 서정민
- 주소: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101번길 44
- 비용: 1인 13,000원 (음료 제공)



자연은 담은, 닮은 뮤지움

해든뮤지움은 서울특별시 신사동에서 유료 갤러리를 운영하던 김춘순 관장이 강화도에 세운 사립 미술관이다. 미술관이 많지 않은 강화도의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에 개관하였고, 국내외 유명 현대미술작품을 전시한다.

해든뮤지움은 사람이 계획하고 지었지만, 자연을 닮아 인위적이지 않은 형태와 구조를 지녔다. 실내와 실외 공간이 단절되지 않은 연결된 3개의 공간으로 디자인 되었다. 세 공간은 내부로는 빛을 만들고 열린 공간을 형성하며, 외부로는 땅을 가르고 하늘을 조각한다. 땅에 담겨있는 형태가 그대로 건축의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든뮤지움은 대지에 순응하고, 풍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택했다. 이 때문에 경사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입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건물로 진입하면 3개의 열린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선큰 가든에서는 하늘, 구름, 그리고 자연의 풍광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안과 밖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이 외에도 통창을 통해 내외부를 끊임없이 연결한다.

내부 관람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잔디마당에서 휴식하거나, 미러가든에서 외부 조각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미러가든은 외부 벽면을 거울로 마감 처리하여 하늘이 확장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거울 속에 자연과 함께 조각작품도 투영되어 두 요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땅을 가르고 하늘을 조각하는 형태



▲ 내부 전시 공간

▼ 입구 램프



▼ 미러가든



▼ 미러가든에 확장된 하늘



▼ 전시실 내 통창



▼ 빛을 끌어들이는 내부



▼ 선큰 가든



